



## 당찬 채란인들의 모임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은 우리나라 채란농가를 대표하면서 양계산업의 발전과 양계협회 회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의미에서 2000년부터 매년 본회직원을 초청해 단합의 장을 열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고골산장에서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 회원과 대한양계협회 직원들이 모여 2006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합인들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함께 참여하는 '다한'

1999년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설립한 다한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채란업을 하는 젊은 2세 양계인들의 모임으로 차별화된 제품생산을 통해 채란업의 경쟁력 확보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공동구매·판매,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사료 품질을 관리하면서 생산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철저한 기록관리 시스템과 전산화 처리를 기반으로 친환경적 사양관리를 도입하여 면역을 강화시킨 건강한 닭을 만드는데 주력하며 고정 수의사를 두어 질병에 대해 철저히 분석·예방하면서 생산자들에게 신선한 계란을 공급한다는 취지하에 여타 다른 조합법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전직원과 다한 영농 조합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지난 값진 성과

지금까지 '다한'은 지난 2000년에 생후 20주령에서 50주령사이에 낳은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인 '2050'란과 무항생제인 숯을 계란에 응용한 '숯계란'을 출시하였다. 특히 지난 1999년 12월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면역항체 개발에 착수하여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항체를 가진 계란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 당시 '다한' 조합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연구, 개발,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과감한 출자를 통해 적극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면역항체 함유 계란을 국내 처음으로 상품 현실화를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다한영농조합법인 이만형 조합장

## 신뢰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

2006년 '다한'에 추구하는 목표는 다한등급기준의 설정, 다한전용 물류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역체계 구축으로 질병 '0'의 실현을 꿈꾼다.

전계군의 입주·도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형유통상과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연중 안정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프리미엄 단가를 실현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선진 축산기업으로 합리적인 경영시스템과 HACCP 도입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신선·안전한 양계산물을 제공하고자 신뢰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 단합의 장

단합대회가 열린 지난 3일, 다한영농조합법인 회원들과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는데 최근 한미FTA 및 자조금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진지한 대

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매년 이 자리에서 갖는 족구경기를 통해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기도 하였다. 이만형 조합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인을 대표하는 조합법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제품 개발과 연구 사업에 참여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 언급하였다.



▲ 양계협회 직원과 다한영농조합법인의 족구경기를 통해 유대관계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